

무안 해제면 천장리 등 5개 마을 주민

“마을 진입로 만들어 주세요”

국도상 불법 좌회전·U턴 잦아 사고위험 커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백동마을 등 5개 마을 800여 명의 주민들이 제대로 된 마을 진입로가 없어 생활의 불편을 겪는데다 사고위험에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면서 천장리 백동마을 등 5개 마을의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이들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는 국도 24호선 위에 설치된 고가도로뿐이다.

이러 불행 U턴을 할 수밖에 없다. 현경면 쪽에서 고가도로를 거쳐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경승용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여유가 없어 사고위험이 높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광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민원접수를 받지 못해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현장을 확인한 뒤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쌀 소비촉진 캠페인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도시 소비자들에게 쌀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6일 프로야구 기아티거즈의 홈경기가 열리는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전남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도시 소비자들에게 쌀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6일 프로야구 기아티거즈의 홈경기가 열리는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전남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함평군 순회서비스 ‘한사랑팀’ 인기

“복지 손길 필요하세요”

함평군 복지서비스팀인 ‘한사랑팀’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월 1회 읍·면별 순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이중 162건은 현장에서 해결했고, 20건은 각 부서와 연계처리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3명의 주민들에 대해 무료 진료를 실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다짐을 밝혔다.

장흥서 ‘草·木·水·卓 생약대전’

7월 30일부터 이틀간

지난 2006년 생약초 한방특구로 지정된 장흥군에서 장흥산 생약초를 활용한 생약대전이 열린다. 장흥군은 물축제 기간인 오는 7월 30일과 8월 1일 이틀에 걸쳐 ‘2009 장흥산 초·목·수·탁(草木水卓) 생약대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앞두고 약요리 발굴과 한방음식 대중화를 통해 생약초·한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장흥군은 물축제의 일환으로 ‘한방 수(水)’ 분야가 오는 7월 30일, 생약초(약용작물) 경연인 ‘초·목(草木)’ 분야는 8월 1일, 밤상(한방음식) 경연인 ‘생약초 탁(卓)’ 분야는 8월 1일 각각 펼쳐진다.

장성 축령산에선 ‘산소축제’

8월 7~9일 3일간

장성군은 8월 7~9일 서삼면 모암리 축령산 일대에서 ‘O<sub>2</sub> 장성 축령산 산소축제 2009’를 개최한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서삼면 청년회와 사회단체 등이 함께 축제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산림청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중 162건은 현장에서 해결했고, 20건은 각 부서와 연계처리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3명의 주민들에 대해 무료 진료를 실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다짐을 밝혔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Includes contact info: 0621364-8700, H.P 010-4608-3700.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cross different districts like Gwangju, Gwangju City, and Gwangju District.



함평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 복원

함평군은 29일 독립운동가 일강(一剛) 김철 선생의 고함인 신관면 함정리 구방마을에서 이석형 군수를 비롯해 보존관련 단체장과 기관·사회단체장, 유족,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해 임시정부 청사 개관식을 갖는다.

함평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 복원

함평군은 29일 독립운동가 일강(一剛) 김철 선생의 고함인 신관면 함정리 구방마을에서 이석형 군수를 비롯해 보존관련 단체장과 기관·사회단체장, 유족,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해 임시정부 청사 개관식을 갖는다.

나주 농어촌공 “참 난감하네”

농업용수 차질없이 공급... 일부 농민 골프장 유착 의혹 제기 곤혹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가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하는 등 관련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서도 명분을 내세운 일부 농민들의 주장에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다.

일부 농민들이 수년간 인근 A골프장에 공급해왔던 용수공급을 문제삼아 나주시사측은 지난달 A골프장에 용수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민들은 A골프장이 나주호 물을 불법 끌어다 쓰는 것을 나주시사가 측이 묵인하고 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 나주호 물 떨어질 상태이지만 관내 9천16ha의 면적에 모내기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했다.